

민주 파행 공천지역 국회의원 긴장

민주 진도군수 후보 '효력정지' 이동진 공천 강행 선관위 수용 여부 주목

화순·해남·진도·순천·광양 무소속 돌풍 예고

경선 과정 잡음 많아 19대 총선 악영향 촉각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가운데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후보 선정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한 까닭에, 경선 파행의 후폭풍으로 무소속에 패하게 된다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해남·진도의 김영록 의원을 들 수 있다. 당초 후보였던 김충식 해남군수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후보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당내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박철환 군의원을 전략공천을 통해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진도군수 후보도 광주지법의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경선 결과가 무효가 되자 민주당은 전략공천의 형식을 빌어 김경부 후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동진 후보 재공천을 강행했다.

현재로서는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고, 해남 유권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런 분위기가 계속 돼 무소속 돌풍이 벌어 19대 총선에서 완도 출신인 김 의원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당 안팎에선 보고 있다.

구 민주당 시절 특별당비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주·화순의 최인기 의원은 마음이 편치 못하다. 나주 시장 후보 경선에서 '유령당원' 의혹이 제기돼 민심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는데다 신정훈 전 시장의 부인인 주향숙씨가 강력한 무소속 후보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경선에서 승리한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됨에 따라 구충곤 도의원을 군수 후보로 전략공천했으나 전 군수가 옥중출마를 선언한데다 임호경 전 군수까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순천의 서갑원 의원과 광양의 우윤근 의원을 공천함으로써 심사가 복잡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서 의원의 개입에 반발해 아예 경선에 나서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데다, 일부 도의원 후보들도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다.

이성용 광양시장도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민주당 경선에 반발하고 있는 지방의원 후보들과 무소속 연대에 나서고 있다.

공천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무안군수 후보 선정 결과는 이윤석 의원의 차기 총선 구도와도 직결된다. 그동안 이 의원이 전략공천을 주장하며 사실상 정해준 예비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서삼석 군수는 공천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공천에는 아무래도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의 19대 총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화갑(왼쪽) 평화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 센트럴 관광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철학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할 정당으로 인정받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평민당이 과거 김 전 대통령과 같이 리더십을 보여줄 정치인이 없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도 없어 민주당에서 소외된(공천에서 탈락한) 광주·전남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정신은 계승하지 않으려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모시려고 한다"라며 "평민당 소속으로 서울 기초단체장과 지방

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조흥규 광주시장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망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김경재 전남지사 후보는 "여수와 광양, 순천, 목포, 강진, 나주, 완도 등지를 돌면서 평민당에 우호적이면서 당신이 유력한 무소속 후보들과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평민당 광주·전남서 분위기 띄우기 안간힘

평화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평민당은 애초 일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하려 했으나, 지역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구도로 흐르면서 틈새 공략

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10일 광주에서 최고위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은 계승하지 않으려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모시려고 한다"라며 "평

■ 지방선거 핫코너

정용화 "광주 음식·뷰티산업 집중 육성"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는 10일 "음식산업과 뷰티산업을 집중 육성해 광주를 매력적인 도시, 기분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등지의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체험형 관광이 증가하면서 음식과 뷰티가 관광의 주요 아이টে็ม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지역 특색을 바탕으로 한 음식산업, 뷰티산업 육성을 통해 수도

으로 ▲한식문화연구소 설립 ▲세계음식타운 조성 ▲세계뷰티타운 조성 ▲뷰티산업 특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강운태 "세계 첫 UN인권도시 만들 것"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10일 5·18광주민주화쟁쟁 30주년을 맞아 5·18기념재단과 5·18 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했다. 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월 정신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광주의 중심 가치로 삼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광주가 세계 첫 UN인권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인권지수 개발 ▲5·18 사료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등재 ▲인권·복지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광주 이미지를 세계에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순천 화상경마장 반드시 저지"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10일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 실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사업이 전면 취소됐던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이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재승인된 것은 순천 시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전 시민의 뜻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석형 "백의종군으로 선거 도울 것"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서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소속 출마 등을 고심하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6·2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군수는 10일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기로 했다"며 출마의사를 접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허탈한 심정을 헤아리고 향후 거취를 논의한 끝에 길목에서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식 선거사무소 개소

민주당 완도군수 후보로 확정된 김종식 완도군수가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 군수는 "민선 4기 4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완도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룩하였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의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가고자 군수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 전남 기초장 후보 확정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11일 여수시장 후보에 심정우 예비후보를, 진도군수 후보로 박봉근 예비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기초의원 후보로 ▲여수 가 선거구 하정철 ▲순천 마 선거구 이정철 ▲고흥 가 선거구 권승철 ▲보성 다 선거구 진은순 예비후보를 각각 내보내기로 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는 김인숙(1번), 차은영(2번)씨를 확정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순천에 황종임(1번), 이평재(2번), 광양에 조연재, 고희에 조항숙씨 등 12명을 공천했다.

참여당 광주 구청장 등 공천 확정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 23명의 공천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당은 또한 이병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초의원 출마 문제는 황재연 시장위원장과 이 전 실장 간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다음은 공천자 명단. ◇구청장 ▲동구 임택 ▲서구 서대석 ▲광산구 송병태 ◇광역의원 ▲남구 장우철 ▲북구 이준영, 김상운 ▲광산구 박석원 ◇기초의원 ▲서구 강기석 ▲북구 양계화, 조석호, 주순일 ▲광산구 배홍식, 공병철, 이창훈, 임주택 ◇광역의원 비례대표 ▲황은영(1번), 이해경(2번) ◇기초의원 비례대표 ▲동구 양미선 ▲서구 박혜원 ▲남구 서영미(1번), 김숙영(2번) ▲북구 이미숙 ▲광산구 이지숙

김재철 "출마 배후 조종설 단호 대처"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김재철 예비후보(여수 재향군인회장)가 최근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출마 배후 조종설'에 대해 10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본인이 모 후보로부터 돈을 받고 출마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다른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고, 모 후보를 당선시킬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전명한다"고 강조했다.

안순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적극 개선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비해 교사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사립 유치원 교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고 교육서비스를 개선해 유아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고 체계적인 유치원 종업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립 사립유치원과 교육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장환 "기초학력 향상 대학생 멘토링 도입"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대·사범대·일반대학 등과 멘토링제 협약을 통해 선배 대학생이 후배 초·중·고생의 학력을 책임 지도해 주겠다"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대학생 멘토가 직접 방문해 수시로 실력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대학생 멘토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과목을 편성 해 학점을 인정해주고, 휴무일이나 방학기간에는 실비를 지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만재 학생인권조례제정협약서 체결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전국 11개 시·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연대해 '학생인권조례제정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교사의 인권도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학생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



조했다. /박지경·정은주·최권일·박진표·조희상·박성태 기자 jkpark@kwangju.co.kr